

‘유통 공룡’ 지역 주유소에 손 뻐다

이마트 24, 광주 흑석동에 자사 브랜드 주유소 운영 주유업계 “영세 자영업자 생계 무너뜨린다” 반발

편의점 업계 4위 이마트24가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 주유소를 내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영세 자영업주유소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주유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지난 달 20일 광산구 흑석동에 자사 브랜드를 내린 광주지역 첫 주유소를 냈다. 이 주유소로부터 반경 1km 안에는 8개의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24는 올해부터 ‘편의점 중심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목포 2개 지역에 주유소를 입차해 1·2호점을 냈다. 목포 2개 지점에 설치된 편의점에는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광주 지점은 세차장·다

어어 판매점·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택배 대형, 알뜰통신요금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왔고 올해 10개 주유소를 개설한 뒤 점차 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주유업계는 편의점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는 ‘편의점 주유소’에 즉각 반발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목포 점포 개장이 알려진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기업 브랜드인 이마트24의 주유소사업 진출 확대는 영세 자영업주유소들의 생계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주유소 사업 진출 움직임과는 반대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사양길을 걷고 있다.

주유소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00개 넘는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영업 신고된 주유소는 광주 262개(광산구 113개·북구 64개·서구 43개·남구 31개·동구 11개), 전남 814개 등 1076개로 집계됐다.

지역 주유소 수는 ▲2017년 1120개(광주 272·전남 848) ▲지난해 1109개(광주 271·전남 838) 등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한진원(59) 주유소협회 광주지회장은 “주유소 사업이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면 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며 “마진을 내려면 현재 휘발유 1당 1500원대 중반 가격을 받아야 하지만 광주지역 주유소 절반 남게 1400원대에 기름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폐업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대부분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폐업한 주유소 15개 부지에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섰는데, 이는 스타벅스 간판을 달면 몸값을 높여 나중에 부지나 건물을 팔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1당 보통 휘발유 가격은 광주 1517.47원, 서울 지역 가격 1623.17원보다 105.7원이 낮고 전국 평균 1537.09원도 밑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박리다매 식으로 석유 가격시장을 교란시킬 의도는 전혀 없고 정가·정품·정량 주유와 편의점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한 것”이라며 “현재 광주지역에 이마트24 주유소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1.35 (-2.15)	금리(국고채 3년) 1.48 (0.00)
↑ 코스닥 651.59 (+4.19)	↑ 환율(USD) 1176.70 (+0.70)

제감사활동 및 자체감사사



한진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이정희·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기업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진 제공>

한진, 감사원 ‘감사활동 콘테스트’ 대상

자체감사활동 4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원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및 자체감사사향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6일 한진은 “감사원이 지난 22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자체감사활동 콘테스트’에서 한진은 자체감사활동 공기업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자체감사사향 콘테스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올해 2·5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30개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6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감사활동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인프라·감사활동·감사성과·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8개 심

사지표를 기준으로 독립성, 전문성 등을 심층 심사했다. 올해는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7개 등 12개 기관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진은 ‘자체감사사향 콘테스트’에서 ‘에너지신사업 SPC 성과감사’를 출품해 대상에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에너지신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10개의 사업추진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경영위험도 점검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한진 상임감사위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진이 가지고 있는 감사자원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벤츠 코리아 ‘소비자만족도 평가’ 3년 연속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수입차 부문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수입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벤츠 코리아는 수입차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및 정보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브랜

드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신설된 수입차 부문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입차 실제 이용 고객 및 예비 소비자 530여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식도, 주행감 및 승차감 만족도, 차량 안전감 만족도, 가격 대비 만족도, 브랜드 미래 가치 등 총 11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됐다.

벤츠 코리아는 브랜드 인식도, 차량 안전감 등에서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3세대 K5’ 사할 만에 사전계약 1만대

다음달 출시 예정인 기아차 ‘3세대 K5’가 사할 만에 사전계약 1만대를 돌파,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3세대 K5’의 계약대수가 사할 만에 1만28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출시한 ‘올 뉴 카니발’이 보유하고 있던 16일 기록을 무려 13일이나 단축시킨 것이다.

3세대 K5의 고객 반응 속도는 기아차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사전계약 첫날 7003대가 계약, 기존 2세대 K5의 한달 평균 판매대수(3057대)의 약 2배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K5의 사전계약 신고 기록은 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국산 중형세단의 산업수요가 무려 19.8%나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3세대 K5’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기아차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 모델로,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하이테크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세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현준(오른쪽) 국세청장이 2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뿌리산업 중기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제외 검토”

김현준 국세청장, 광주 하남산단 방문 중기 대표와 간담회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만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 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업종을 말한다.

김 청장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상향기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현재 2020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기업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

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김 청장은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돼,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 등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퍼즐 한 조각으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지요.
신문을 보면 퍼즐을 맞춰가듯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